

2026 봄학기 유럽인문 아카데미

2026. 4. 6. (월) 개강
2026. 6. 12.(금) 종강

<제인 오스틴 탄생 250주년 기념 기획특강>

망가진 세상에서 제인 오스틴 소설 읽기의 의미 찾기

김명환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제인 오스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인기 작가에 속하지만 주로 '로맨틱 코미디'로 소비되는 경향이 크다. 프랑스대혁명과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영국 젠트리 층의 남녀관계와 결혼시장에 집중한 오스틴이 과연 무엇을 탐구했으며 어떤 문학적 성취를 이룩했는가를 깊이 살핌으로써 21세기 오늘의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을 모색한다.

2026년도 봄학기 정규 프로그램

2026년도 봄학기 정규 프로그램 ■ 입문강의 ■ 강의 ■ 세미나 ■ 원전강독

	월	화	수	목	금
1교시 14:30 -16:20		김명환 [기획특강]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제인 오스틴 탄생 250주년 기념] 망가진 세상에서 제인 오스틴 소설 읽기의 의미 찾기 박미리 그림과 음악으로 시 읽기 - 모네, 다 빈치, 바흐와 릴케를 중심으로	김시형 베이컨 철학의 이해 추은혜 온라인 메틀루-폰티의 삶의 존재론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엄청/키아즘』장 읽기 박규희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 읽기 - 철학은 삶의 위안이 될 수 있는가?	신혜수 각각의 확장과 몰입 - 음악과 미술의 크로스오버 김영재 온라인 데이비드 흄의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1권 원전강독 Ⅱ - 지식과 개연성에 관하여 1	김태수 바이마르 공화국 - "고전적 근대"의 실형장
2교시 16:40 -18:30	최성만 벤야민의 역사철학	윤형식 [칸트 철학 입문] 융합한 칸트 - 그가 꿈꾼 '사람 사는 세상'의 철학 김호균 맑스 『자본론』과 현대 자본주의 최용찬 '세기말 비엔나' 문화 연구	홍종진 온라인 근대 서유럽을 만든 힘 - 전쟁, 자본, 과학 (I) 허민준 진문의 기원을 찾아서 - 아리스토텔레스 『분석론 전서』1권, 4-7장 독해	김동훈 미학 강의 I - 상상력과 감정의 프리즘을 통해 본 예술 권희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철학 - 『확실성에 관하여』 읽기 윤미애 지역과 도시 산책 - 해설, 크라카우어, 아라공, 벤야민을 중심으로 이승진 브레히트 서사극 깊이 읽기 I	김영정 베케트의 희곡 읽기 - 마지막을 이야기하다 최성현 부르크하르트의 『세계사적 고찰』 원전강독
3교시 19:30 -21:20	고반석 온라인 북쪽 바다의 지배자들 - 바이킹과 한자동맹, 지지대를 통해 보는 북유럽의 역사 박정규 온라인 왕의 나라에서 의회의 나라로 - 근대 영국의 정치 변혁 김덕영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막스 베버와 사회학 송종진 온라인 보틀레르의 『파리의 우울』 깊이 읽기 박단 프랑스 공화국의 이상과 현실 Ⅲ - 여성은 어떻게 '공화국 시민'이 되었는가?	이순애 아도르노 예술론의 두 축 - 가벼운 예술과 진지한 예술 이준석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강독 (1-4권) 김수환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체벤구르』 함께 읽기	박문정 나폴리의 마법, 시칠리아의 진실 - 지중해를 읽는 아홉 번의 밤 박정태 들뢰즈 입문 - 들뢰즈 고유의 실천(예술, 정치, 경제...)을 통해 들뢰즈를 그리다 배세진 금붕어를 위한 철학 강의 II - 미셀 푸코 입문 한성연 온라인 몇 가지 도덕철학 주제와 경제학 김석모 온라인 추상 미술의 탄생과 추상 이후의 추상 미술	양희민 온라인 비잔티움에 머무른 장소 - 지중해 세계의 주요 도시와 그 역사로 배우는 제국의 문화 차승현 온라인 새로운 천년 - 11-12세기 서유럽의 초상	정준영 죽음 앞에 선 철학자 소크라테스 -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크리톤』을 중심으로 김을 온라인 중세의 자유의지론 임동현 근대 이탈리아의 귀족 문화 - 이윽과 애정 사이에서 태어나는 근대적 감수성 반기연 베게티우스의 『군사론』 (De Re Militari) 원전강독 I 이재영 온라인 프린드리히 셸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지』 원전강독 IV

유럽인문아카데미는 유럽 인문학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성의 공간입니다. 유럽을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비판적 인문학의 마당이 되고자 합니다.

장소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서울 서초구 매향로6길 54)

수강료 1교시(2시간)당 1만 원 (10주 강좌 10만 원)

신청 홈페이지 www.aeh.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신청기간 2026년 3. 23. (월) 14:00 ~ 4. 6. (월) 10:00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하차
- 10번 출구로 나와 08번 마을버스 승차
- 더케이 호텔 후문 하차 후 길 건너 도로로 5분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하차
- 5번 출구에서 도로로 10분

2026 봄학기 강좌소개

기획특강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망가진 세상에서 제인 오스틴 소설 읽기의 의미 찾기

제인 오스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인기 작가에 속하지만 주로 ‘로맨틱 코미디’로 소비되는 경향이 크다. 프랑스대혁명과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영국 첼트지 층의 남녀관계와 결혼시장에 집중한 오스틴이 과연 무엇을 탐구했으며 어떤 문학적 성취를 이룩했는가를 깊이 살필으로써 21세기 오늘의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을 모색한다.

입문강의

■ 북쪽 바다의 지배자들 — 바이킹과 한자동맹, 저지대를 통해 보는 북유럽의 역사

유럽 중세 북쪽 바다는 바이킹과 한자동맹 상인들의 무대였다. 북해 남안 저지대의 상인들도 수공업자들이 만든 직물과 여러 상품을 가지고 북해 교역에 뛰어 들었다. 여러 주체들이 활동했던 북해-발트해의 역사를 통해 유럽을 북쪽에서부터 들여다본다.

■ 미학 강의 1 — 상상력과 감정의 프리즘을 통해 본 예술

예술은 사람이나 멜랑콜리, 권태나 불안과 같은 다양한 감정에 의해 자극받은 상상력을 통해 창조해낸 무언가를 시각과 청각 등 감각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감상하는 이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자아내는 인간의 활동이다. 이렇듯 예술 활동에 언제나 동반되는 상상력과 감정의 프리즘을 통해 예술의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 베이컨의 철학의 이해

금지된 경계를 지나 대양으로 향하는 배로 상징되는 인간 정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세계의 주인임을 선포한다. 아는 것은 힘이 되어야 한다. 도전이 없는 곳에 학문의 진보가 없으며, 진보가 없는 곳에서 인류는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연 지배 패트리스는 오만함, 탐욕, 지배욕, 아니면 창조 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실현 의무에서 오는가?

■ 바이마르 공화국 — “고전적 근대”의 실험장

이 강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11월 혁명,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거리의 폭력, ‘1920년대의 황금기’라 불린 대중 문화의 폭발, 그리고 대공황 이후 민주주의의 급속한 몰락까지, 불과 14년의 짧은 시간에 현대 사회의 빛과 그림자가 가장 농축되어 드러난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를 10주 동안 차근차근 따라간다.

■ 나폴리의 마법, 시칠리아의 진실 — 지중해를 읽는 마술 번의 밤

나폴리의 환상 동화부터 시칠리아의 냉혹한 현실까지. 로마 아래, 우리가 몰랐던 이탈리아 남부의 진짜 얼굴을 만난다. 바로크 미학과 신사실주의, 페란테와 피란델로를 아우르는 매혹적인 문학 기행, 강렬한 태양과 그들이 공존하는 지중해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탐독하는 9주. 낯선 이탈리아가 건네는 깊은 울림에 빠져보자

■ 왕의 나라에서 의회의 나라로 — 근대 영국의 정치 변혁

왕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 정치는 소수의 특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은 왕이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갈등과 타협의 결과였다. 이 강좌는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는 영국의 역사 따라가며, 왕권과 의회의 기나긴 인연을 풀어본다.

■ 들뢰즈 입문 — 들뢰즈 고유의 실천(예술, 정치, 경제...)을 통해 들뢰즈를 그리다

만약 들뢰즈가 화가, 영화감독, 정치인...이라면 그는 어떤 모습인가? 이 몽상적인 물음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이 자신의 철학을 예술, 정치, 경제 등의 영역에 적용한 그의 글 속에 있다! 본 강좌는 대학을 벗어난 들뢰즈가 거리의 투쟁가, 시장의 상인, 극장의 예술감독...으로 어떻게 일관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드라마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 금융어를 위한 철학 강의 II — 미셀 푸코 입문

본 강좌는 미셀 푸코 철학에 입문하기 위한 최적의 강의이다. 본 강좌를 통해 그 어떠한 사전 지식 없이도 푸코 철학의 친해질 수 있고 푸코를 강좌 이후 스스로 읽어내갈 수 있다. 본 강좌는 푸코 철학의 문제의식을 평이하면서도 정확히 전달한다.

■ 감각의 확장과 물음 — 음악과 미술의 크로스오버

감각과 인식을 확장시키고 작품에 몰입케 하는 다각각적 예술 경험으로서 음악과 미술의 크로스오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음악과 미술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기에 두 예술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수밖에 없다. 이를 여러 시대의 작품과 작가, 개념과 현상을 통해 살펴보고 음악과 그림의 다채로운 교류와 융합을 다각적으로 조망한다.

■ 비잔티움의 머무른 장소 — 지중해 세계의 주요 도시와 그 역사로 배우는 제국의 문화

비잔티움 제국. 다소 낯선 이름이지만, 로마 제국의 정통 계승자로서 1453년까지 지중해 세계를 이끌었다. 이 독특한 문명은 우리가 아는 ‘유럽’과 ‘중동’의 경계에서 찬란하게 빛났다. 황제의 행렬이 지나간 대로, 상인의 유골을 모신 성당, 시장에서 거대한 동방의 향신료와 비단까지. 지중해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며 비잔티움의 흔적을 더듬어 갈 것이다.

■ [칸트 철학 입문] 용감한 칸트 — 그가 꿈꾼 ‘사람 사는 세상’의 철학

칸트(1724-1804)는 도덕적 인간, 즉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궁극적으로 그의 철학은 그가 꿈꾼 ‘사람 사는 세상’의 실현 가능성과 조건을 따져 묻는 작업의 결실이다. 이 강의는 이러한 칸트의 꿈에 비추어 그의 철학 전반을 조망하고 안내하고자 한다.

■ 아도르노 예술론의 두 축 — 가벼운 예술과 진지한 예술

인공지능(AI) 시대에 ‘계몽의 번들밤’ 태세가 지닌 함의를 검토한다. 지적 능력 증강에 매진하는 개발자들은 예술이 설 자리를 계속 허문다. 자율예술이 없으면 문화산업도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감각적 즐겁’의 능력이 점점 사소해지기 때문이다. 아도르노가 제시하는 ‘진지한’ 예술과 ‘가벼운’ 예술의 차이 관계에서 ‘쾌감’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 본다.

■ 죽음 앞에 선 철학자 소크라테스 —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크리톤』을 중심으로

소크라테스는 널리 알려진 동시에 가장 오해되고 있는 철학자다. 그는 시민분봉주의 호시인가,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한 인물인가? 자살자인가, 용감한 인물인가? 은둔의 철학자인가, 정치철학의 호시인인가?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도대체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신의 사명으로 생각한 것일까? 이 강좌에서는 이런 의문들을 탐문할 것이다

■ 새로운 천년

— 11~12세기 서유럽의 초상

서기 천년, 두 번째 밀레니엄을 맞이한 서유럽은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화나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기사, 성, 마상장사함, 십자군, 주군과 가신, 영주와 농노 등이 탄생한 11~12세기 서유럽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해보자.

■ 몇 가지 도덕철학 주제와 경제학

경제학은 도덕적 사유를 강력히 배척하는 학문이다. 그 결과 경제학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메마르고 피폐해진다. 이 강의는 먼저 서양 윤리학사에서 경제학의 반도덕적 계보를 밝히는 한편, 경제와 도덕의 분실된 연결고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그 후 신경제생물학과 진화생물학의 연구결과에 힘입어 이 고리를 보강한다. 경제학은 ‘좋은삶’에 기여해야 한다.

강의

■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철학 — 『확실성에 관하여』 읽기

비트겐슈타인의 3대 걸작이라 평가받는 『확실성에 관하여』는 그가 죽기 이를 건너치기 때려간 마지막 작품이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인식 및 행위의 궁극적인 기초가 무엇인지 탐구하면서 마침내는 의식 불가능한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서 확실성에 다다른다. 본 강좌는 이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막스 베버와 사회학

사회학이 갈수록 통계화되고 수학적화되어 가면서 점점 더 설 땅을 잃어가는 오늘날 고전, 특히 막스 베버로 돌아가 진정한 사회학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베버의 거대한 지적 세계를 통해 사회학적 인식의 기본 뼈대를 — 이론, 경험, 역사, 비교연구, 방법론, 이론과 실천의 관계 등을 — 훑어보기로 한다.

■ 추상 미술의 탄생과 추상 이후의 추상 미술

현대미술은 20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세기 중반에서 출발한다. 이 강의는 재현의 미술이 어떻게 감각과 구조의 언어로 전환되며 추상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추상의 언어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며 미술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소개한다.

■ 중세의 자유의지론

13세기 말 스킨라철학에서 벌어졌던 자유의지 논쟁은 철학사의 흥미진진한 하이라이트다. 인간의 의지는 해, 어떤 의미에서 자유로운가? 지금도 마찬가지란, 그리스도교가 지배하는 중세에도 이 질문은학인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도전적 난문이었다. 당대 스킨라철학자들의 배가쟁명을 따라가며 중세의 자유의지론을 조망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다.

■ 맑스 『자본론』과 현대 자본주의

오늘날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혁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논리적, 역사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자본론』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두뇌노동 중심의 생산력 혁명에 기초하는 새로운 ‘자본관계’를 추상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있다.

■ 그림과 음악으로 시 읽기 — 모네, 다빈치, 바흐와 릴케를 중심으로

본 강좌는 그림과 시, 음악과 시를 함께 놓고 이해하려 한다. 그 경우 그림분석이나 음악분석을 그대로 시를 해석한다. 그림의 기법들, 또는 음악 기법들이 시에서 어떤 형식으로 전환되는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는지를 규명한다. 그림으로써 하나의 예술 속에서는 행방되지 않는 의미를 다른 예술의 이해를 통해 찾고자 한다. 수강자들은 통합적 예술 감각을 기르게 된다.

■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 깊이 읽기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을 시작으로 마침내 산문은 시가 되었다. 시적 현대성의 근원을 이루는 산문시집 『파리의 우울』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을 통해 산문시 읽기의 즐거움을 느껴보자.

■ 기억과 도시 산책 — 해설, 크라카우어, 아라공, 벤야민을 중심으로

모더니터를 해방하는 문학 · 비평 텍스트에서 도시는 현대문화의 근원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낼 흔적들의 무대로 등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산책은 도시의 현재에 대한 관찰을 넘어 역사적 기억으로 시선을 확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베를린과 파리에 대한 해설, 크라카우어, 벤야민, 아라공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기억과 도시 산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강독 (1-4권)

고전은 고약한 데가 있다. 읽거나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말도 없고, 남들 앞에서는 당연히 읽은 책을 해야 하니 난감하다. 9회의 강의 동안 우리는 고전 읽기를 위한 방법을 할 것이다. 여기엔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재적이다. 직접 작품 속으로 들어가 한 줄씩 읽어가며 음미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린다.

■ 벤야민의 역사철학

유대계 독일 작가 발터 벤야민(1892-1940)은 오늘날에도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다양한 사유모티프와 지적 자극을 주는 글들을 남겼다. 이번 학기에는 역사와 ‘역사철학’과 관련된 글들을 읽으면서 그의 사상세계 전체를 천착해본다.

■ 메를로-퐁티의 삶의 존재론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워힘/키아즘』장 읽기

메를로-퐁티는 후기 철학에서 지각에 선행하는 욕망과 고유한 신체에 앞서는 감각적인 것을 사유의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주제와 지각의 부류의 새로운 현상학적 존재론을 기획한다. 본 강좌는 그의 후기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의의(chair)’을 중심으로, 그의 마지막 시기에 쓰인 구절들을 함께 읽으며 그가 도달하려 했던 존재의 심층을 탐구한다.

■ 근대 서유럽을 만든 힘 — 전쟁, 자본, 과학 (II)

서유럽 열강은 19세기 이후에야 전통적인 아시아의 대제국들에 대해 우위에 설 수 있었다. 14세기까지만 해도 후진적이었던 서유럽은 어떻게 비유럽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 중세 말에서 근대 전기까지, 즉 14-18세기에 이루어진 서유럽 사회의 변화과정을 전쟁, 자본, 과학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미나

■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채널루르』 함께 읽기

김수현 화 3교시(19:30-21:20)

한 학기 내내 플라토노프의 『채널루르』를 함께 읽어보는 자리! 100년 전 쇠뇌에트의 유포티마 소설을 21세기 ‘동시대의 텍스트’로 다시 음미해보는 시간! ‘나의 플라토노프를 ‘우리들의 플라토노프로 확장하고, ‘슬픔’과 ‘우울’의 감각을 ‘연민’과 ‘우정’의 무대로 바꿀수 있는 기회!

■ 베케트의 희곡 읽기 — 마지막을 이야기하다

사무엘 베케트를 전 세계적 유명세로 오르게 한 『고도를 기다리며』를 넘어 기타 희곡 텍스트를 강독하며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베케트의 연극 세계를 탐구한다.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세미나이며, 영어와 프랑스어 원작을 참조하여 이해를 심화한다.

■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 읽기 — 철학은 삶의 위안이 될 수 있는가?

보에티우스는 철학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위로는 따뜻하고 철학은 차갑다. 그렇다면 철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걸까? 보에티우스는 그의 『철학의 위안』에서 이 질문에 대해 말한다.

■ 프랑스공화국의 이상과 현실 III — 여성은 어떻게 ‘공화국 시민’이 되었나?

프랑스혁명은 과연 여성에게도 혁명이었는가? 낙태권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기한 나라. 부부간 성관계도 물론 법적으로 부인한 나라. 그러나 여성 참정권 허용은 뒤늦었던 나라 프랑스 — 프랑스 공화국의 모순을 정면으로 본다.

■ 브레히트의 서사극 깊이 읽기 I

본 강좌는 브레히트의 『서풍짜리 오페라』, 『사천의 선인』, 『갈릴레이의 생애』 등의 서사극을 읽으면서 서사극은 전통 연극과 무엇을 달리하는가?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인정을 관망하라’는 요구가 반복되며 서사와 사회화 기법을 통해 어떻게 무대에 서 구현되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각 작품을 그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 근대 이탈리아의 귀족 문화 - 이익과 애정 사이에서 태어나는 근대적 감수성

귀족 가문 구성원들의 삶 안에서 구현되는 시대의 초상. 어느 시대에나 이단아가 존재했던 것처럼 어느 가문이나 저항하는 영혼이 존재했다. 전자가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었다면 후자는 사적인 관계 속에서 정서의 변화를 이끌었다.

■ 『세기말 비엔나』 문화 연구

칼 쇼크스의 명저 『세기말 빈』은 19세기 말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 비엔나의 문화 연구를 위한 가장 탁월한 교본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문화 연구(사)는 세기말 비엔나의 지엽적인 문화지도를 넘어 현대 유럽 문화의 전체 지형을 한눈에 조망하는 문화사적 안목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현대인을 위한 필독서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 추론의 기원을 찾아서 — 아리스토텔레스 『분석론 전서』1권, 4-7장 독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추론은 왜 타당할까? 2천 년 넘게 서양 철학 사유를 지배한 논리학 문법의 비밀은 아리스토텔레스 『분석론 전서』에 담겨 있다. 이 고전은 천 년을 관통하는 논리학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

원전강독

■ 데리다의 흙의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 1권 원전강독 III — 시식과 개연성에 관하여 1

영국의 경험주의를 완성한 철학자인 데이비드 흙의 테두리적인 『인성론』을 강독한다. 흙의 표현을 빌리면, 『인성론』은 인체학에서 사산하고 말한다. 그 만큼 당시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드물었다. 본 강좌에서는 난해하지만 20대 젊은 나이의 흙이 사유가 고스란히 담긴 『인성론』 원문을 직접 읽으며 막 태동하는 그의 철학적 사유를 음미한다.

■ 베게티우스의 『군사론』(De Re Militari) 원전강독

제정 후기 로마제국의 근대는 여전히 강력했는가? 타쳐오는 군사적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서양의 대표적인 군사고전문 베게티우스의 『군사론』(De Re Militari)을 통해 서기 4세기 로마제국의 군사(軍事)를 살펴본다.

■ 프리드리히 쉐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지』 원전강독 IV

“인간은 유희할 때만 완전하다”는 말로 현대 사회와 인간의 분열 및 소외를 비판하고 미적, 예술적 교육을 문제 극복의 길로 제시한 쉐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지』는 예술론과 윤리학, 인간학, 역사철학 등 폭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이론적 모체과 성장에 바탕하여 독창적인 미학을 전개한다. 그의 이론을 원문 그대로 충실히 따라가며 추적해본다.

■ 부르크하르트의 『세계사적 고찰』 원전강독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잠재력)으로 구성되어 어떻게 작동하는가? 역사에서 위대한 무엇이고 위대한 누구인가? 19세기 독일어권에 속하는 스위스 바젤의 역사학자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의 명저 『세계사적 고찰』을 음미하면서 읽어 나가는 원전 강독 수업이다.

배재진 수 3교시(19:30-21:20)

김석모 수 3교시(19:30-21:20)

신혜수 목 1교시(14:30-16:2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윤길 금 3교시(19:30-21:20)

박미리 화 1교시(14:30-16:2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박미리 화 1교시(14:30-16:2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홍진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

김유정 화 2교시(16:40-18:30)